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17~6/23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소설 금강경 법회 수보리의 회상	고닐	북이랑
2	불교성전	불교성전 편찬위원회	조계종출판사
3	정토 수행 지침서 1	영화 / 조소영	도서출판 운주사
4	나무아미타불 마음수업	페이웅	향기책방
5	인연이 깊을수록 미안한 게 많다	지안	불광출판사
6	행복(개정판)	법륜	정토
7	DIARY OF A KOREAN ZEN MONK(선방일기)	VEN. JIHEO	불광출판사
8	법구경(불교경전15)	석지현 역	민족사
9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개정판)	퇴옹 성철	장경각
10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	정토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일상에서의 호흡명상 숨	래리 로젠버그/미산	한언
2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있다	월폴라라훌라/이승훈	경서원
3	요가 수트라	B.K.S.아헹가/현천	선요가
4	티벳 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초펠 편역/게시 소남	하늘호수
5	AI도 훔쳐보는 불교문답	정우 스님	맑은소리맑은나라
6	법구경 이야기 (1)	무념,응진 역	옛길
7	일상을 바꾸는 법화경 이야기	일현 함현준	운주사
8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엮음	불광
9	불교와 아리스토텔레스	세스 주이호 세갈	운주사
10	어서 오세요 희망약국입니다	임종섭	모과나무

가짜 휴식의 시대 "쉼마저 쉬어라"



휴휴선
월암 스님 지음
담앤북스
2만5000원



월암 스님은 〈휴휴선〉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집착과 아집마저 내려놓는 '궁극의 쉼'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경전·어록에서 찾은 '쉼'의 철학
몽산 선사 '휴휴선' 현대적 변용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치열한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쉼'은 뒤처짐이자 불안의 다른 이름이다. 휴식마저 더 높은 성취를 위한 효율의 대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원나라 몽산 덕이(1231~1308) 선사는 말한다. "쉬어라, 그리고 그 쉼마저 쉬어라."

앎에 대한 집착과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을 온전히 멈출 때 번뇌는 사라지고 본래의 맑은 마음이 드러난다. 몽산 선사는 이를 '휴휴(休休, 쉬고 또 쉼)'라 불렀다. 몸의 휴식에 머물지 않고 집착과 아집마저 내려놓는 궁극의 쉼이다.

〈휴휴선〉은 한국불교의 선맥(禪脈)을 잇고 있는 월암 스님(문경 한산사 용성선원장)이 몽산 선사의 휴휴선을 중심으로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이 전해온 '쉼의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풀어낸 책이다.

월암 스님은 '피로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선가(禪家)에 면면히 전승되어 온 휴(休)의 사상과 실천 속에 우리를 안심시킬 가장 명쾌하고 따스한 해답이 숨 쉬고 있다"고 말한다. 휴휴란 단순히 고된 일과를 마친 뒤 몸을 눕히는 휴식이 아니다. 세속적 욕망과 성취에 대한 미련,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는 몸짓을 완전히 내려놓는 '철저한 멈춤'이다. 스님은 "진정한 쉼은 바쁜 일상에 파묻혀 까맣게 잊고 지내던 '참나'의 얼굴을 다시 찾는 가장 눈부신 본래성의 회복"이라고 강조한다.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는 휴휴선의 연원을 탐색한다. 초기 경전과 대승 경전, 조사 어록에 설해진 방하착(放下著), 휴헐(休歇), 휴한(休閑)의 가르침을 통해 '쉼'의 사상을 갈무리한다. 2장은 보조 지눌과 진각 혜심 선사가 설한 휴헐법문과 그 수증(修證)의 방편을 소개한다. 한국 선불교 전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쉼의 수행법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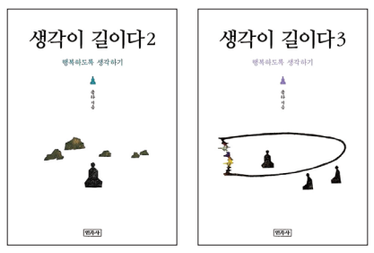
3장은 이 책의 핵심이라 할 몽산 선사의 휴휴 종지와 실천을 다룬다. 몽산 선사의 행장 속에 깃든 휴휴 정신을 살피고, '휴휴암명'과 '휴휴암좌선문'에 새겨진 가르침을 드러낸다.

4장은 몽산의 종지를 이어받은 고려 말 선사들의 궤적을 좇는다. 만항·혼구·천희 선사가 어떻게 고려불교 속에 맹렬한 휴헐의 수행을 구현했는지를 살핀다.

5장에서는 명나라 말 감산 덕천 선사의 선사상 속에 흐르는 휴헐의 수증론을 〈감산노인몽유집〉을 통해 살피고, 6장에서는 명나라 말 사대부 신시행이 보여준 휴휴 정신의 변용을 다룬다. 신시행은 몽산 선사의 휴휴선을 유가적 삶의 지혜와 결합해 세간의 언어로 풀어냈다.

월암 스님은 "명상이 스트레스 완화나 심리적 위안이라는 '증상 치료'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면, 휴휴선은 내가 단단히 쥐고 있는 고통의 뿌리, 즉 '나라는 아집'과 '대상을 향한 맹목적 집착' 자체를 단박에 쾌유시키는 근원적 심리 치유이자 생사 해탈"이라고 말한다.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생각이 길이다2·3
용타 스님 지음 / 민족사 / 각 1만5000원

짧은 글에 담아낸 '생각 사용법'
불교 사상 바탕, 삶의 방식 제시

"본래 부처이므로 지금 부처할 수 있다."

〈생각이 길이다〉 2권과 3권은 불교 수련 프로그램 '동사섭'을 창시하고 오랫동안 지도해 온 재단법인 행복마을 회주 용타 스님이 전하는 '생각 사용법'에 관한 책이다. 용타 스님이 수행 현장에서 길어 올린 사유가 각각 108개의 짧은 글로 담겼다.

용타 스님은 행복의 출발점을 '생각 잘 하기'에서 찾는다. 같은 현실을 마주해도 어떤 이는 무너지고 어떤 이는 평온을 유지하는 이유는 현실 자체보다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생각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스님은 "자신과 세상에 대해 바람직한 생각을 하면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행복과 해탈을 주관하게 된다"고 강조한다.

2권은 무아(無我), 연기(緣起), 공(空), 즉심즉불(卽心卽佛) 등 불교의 핵심 사상을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며 괴로움의 근원을 탐구한다. 특히 '실체사고', '이중화살', '무공덕' 같은 독창적인 개념은 익숙한 불교 교리를 재해석해 독자가 자신의 마음 구조를 스스로 들여다보게 만든다.

3권은 깨달음을 삶 속에서 구현하는 실천의 문제에 집중한다. 감사와 공감, 표현, 관계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통해 삶의 분위기와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여수령 기자

차 한 잔에 담긴 성찰과 비움



차의 길 마음의 길
김대철 지음
들메나무
2만5000원



6월 11일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김대철 한국여천차문화원 이사장.

차문화 대중화 앞장 40년
"마음 정돈하는 수양 도구"

40여 년간 한국 차문화 대중화와 인문학적 확산에 노력해 온 김대철 한국여천차문화원 이사장의 다섯 번째 저서 〈차의 길 마음의 길〉이 출간됐다.

6월 11일 부산 영광도서 8층 문화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김대철 이사장은 "차 생활을 통한 심외무차(心外無茶)의 길을 걸으며 틈틈이 썼던 글들을 모아 스스로의 마음자리를 찾는 길을 열어보고자 이번 책을 내게 됐다"며 "차를 통해 나를 돌아보는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책은 저자가 찻자리를 지키며 남긴 성찰의 기록이자, 다선일미의 정신을 현대 인문학 언어로 풀어낸 명상록이다. 다도의 역사나 형식을 기술하는 것을 넘어, 차 한잔을 통해 일상의 번뇌를 가라앉히고 맑은 성품을 회복하는 '마음공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저자는 책을 통해 차를 마시는 행위가 물리적인 갈증 해소가 아니라, 정신을 일깨우고 흩어진 마음을 가지런히 정돈하는 수양의 도구임을 강조한다. 특히 뜨거운 물과 만난 후에야 비로소 은은한 향을 사방에 퍼뜨리는 찻잎의 성질을 인간 삶의 수련 과정에 비유한다. 다도는 이론이나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며, 오직 차를 내리고 마시는 실천적 경험과 마음속 집착을 내려놓는 '방하착(放下着)'의 태도 속에서 완성된다고 설파했다.

신중식 목사(호남신학대학교 전 교수)는 서평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구도자들이 평생 묻고 찾은 화두인 '마음공부'의 진수가 담긴 책"이라며 "차인이라면 누구나 머리맡에 두고 묵상해야 할 인생의 양서"라고 말했다.

김대철 이사장은 1980년대 초반부터 대중 교육과 영남권 네트워크 구축을 주도하며 차문화 대중화에 앞장서 온 전통문화운동가이자 다학(茶學) 연구가다.

1982년 부산에 '여천차문화원'을 설립하고 대구와 울산, 경주 등에 지원을 세워 인문학 교육을 이어왔다. 또 해인사 불교대학, 순천대학교, 경성대학교 등의 강단에서 다도학과 동양철학을 강의하며 다인 양성에 힘쓰고 있다.

불국사 석굴암 헌공다례 총감독과 경주 남산 삼화령 헌다식 봉행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부산국제차문화대전과 가야차문화한마당축제 등의 위원장직을 두루 거쳤다. 〈다도와 인문학 산책〉, 〈인생이 한 잔의 차와 같다면〉, 〈우리 차 문화〉 등 다수의 저서를 펴냈다. 신라 풍류사상과 다도 정신을 학술적으로 고증하는 연구 논문들을 꾸준히 발표해 다산차문화상 학술상과 초의차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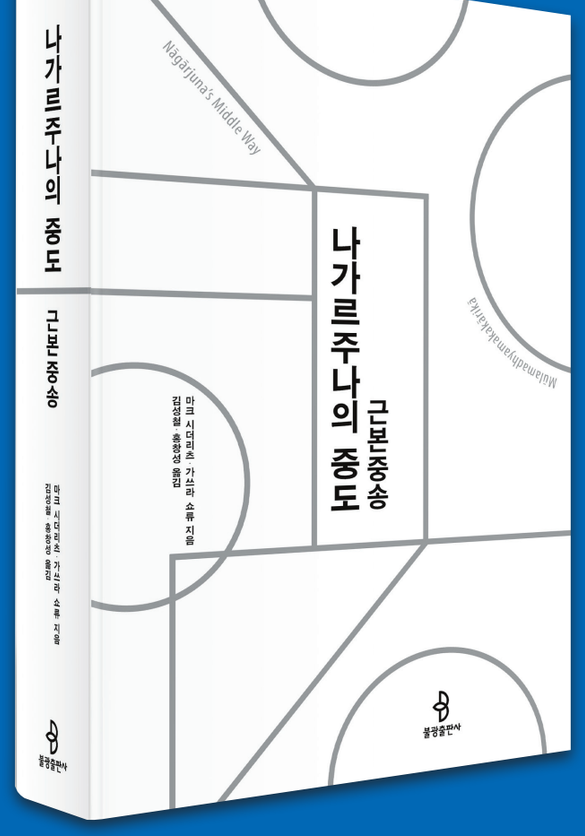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교철학사의 중심에 선 단 하나의 책!

나가르주나(용수)의 사상을 가장 명확하게 밝혀낸 국제 불교학계 공인 결정판

나가르주나의 중도
근본중송

마크 시더리츠·가쓰라 쇼류 지음 | 김성철·홍창성 옮김
456쪽 | 32,000원



"전 세계가 찾아 읽는 『근본중송』 해설의 정점"

현대 불교철학계의 세계적인 두 거장
마크 시더리츠 · 가쓰라 쇼류 집필
✖
불교철학의 전통과 현대를 잇는 두 석학
김성철 · 홍창성 완역

동아시아 불교 사상의 원류가 된
'공(空)'과 '중도(中道)'의 핵심을 읽다!

★★★ 불교철학을 공부하는 이라면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책

★★★ 한 권의 책이 스승이 될 수 있다면, 이 책이 그에 가장 가까울 것이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